

인력난·계분 처리로 생산성 항상 뒷전에 밀려 있다

우리나라 채란양계산업의 생산성 위치는 과연 어느 수준에까지 와 있나? 에 대한 해답은 외곽에서 주관적으로 보는 시각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7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축산물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힘입어 규모를 키우는 것이 경영상 유리한 조건이 되어왔으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규모의 경제화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80년대말에는 양계사육수에 따라서 대군업자와 소군업자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하였고 점차 양계가구수가 감소하면서 사육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농림수산부가 집계한 1990년3월 현재 닭 사육규모별 사육가구수를 보면 약 121천가구로 82년3월 542천가구에 비해 78%가 감소

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반면 닭 사육수수에 있어서는 90년3월 5천9백만수로 82년3월 4천여만수에 비해 32%가 증가한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중 산란계에 있어서는 893월에 3천7백40만수, 82년3월에 2천4백90만수로 50%가 증가하였으며 90년3월 3천8백만수에 비하면 52%가 증가한 추세에 있다.

위에서 살펴본 통계에 따르면 사육농가는 대거 줄어든 반면 사육규모는 상당히 증가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육계 및 산란계를 포함한 지역별 규모별 양계가구수를 보면 1만수~3만수규모가 총 1,266가구로 이중 경기도에 541가구가 집중적으로 편재되어 있고 3만수~5만수 규모 169가구 중 97가구 57%가 역시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으며 5만수 이상 농가 101가구 중 51가구 즉 50%가 경기도에 있어 규모상으로 볼때 50%

□ 취재/김용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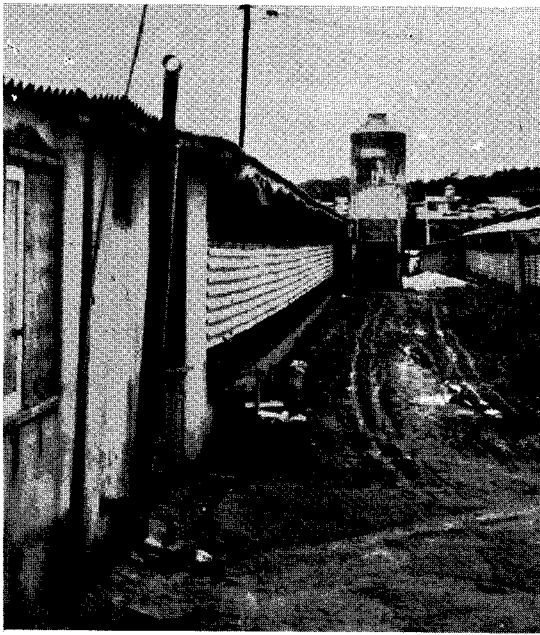
정도가 경기도 일원에서 양계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에서 양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건상에도 여러가지 변수를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의 채란양계 생산성 향상 수준은 결국 규모증가에 치우친 나머지 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진일보 하지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일원의 지가(地價)는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채란계 3~4만수를 하고 있는 기존양계장의 위치라면 평당 7만원부터 15만원선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들 4~5만수 규모일 경우 계사시설이 낙후되어 평당사육수수가 30수도 채안되고 있어 채란성계사만 최하 1,500평정도는 되어야 하고 여기에 육추사, 계분



△ 사육규모에 비해 계사시설은 낙후되어 있다.

건조장, 관리인 숙소 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만평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한 양계업은 폐기물관리법상의 강력한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기존양계업자로 하여금 시설에 대한 재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89년에 본회가 분석한 전국평균 계란생산비를 보면 대란기준 48.77원이었다. 이번 경기도 이천 및 여주군에 산재해 있는 4만수 이상 채란양계장의 대란생산비를 조사한 결과 42~45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산비절감이 최대 관건인 생산성향상은 근 10여년간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어느 양계장을 다녀봐도 계분처리 때문에 양계업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분처리를 위해 인접한 비싼 땅을 매입하고 있는 농장도 여러곳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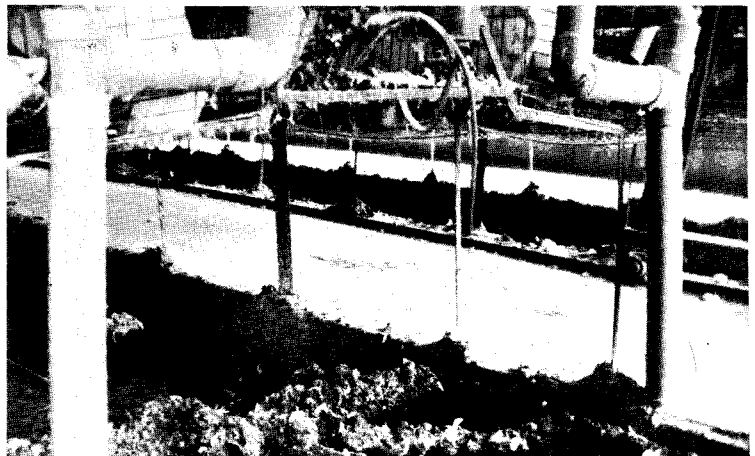
자동화시설이라고 해야 U형급수기, 제분을 위한 스크레퍼, 호

퍼식 급이기 등이 고작인 농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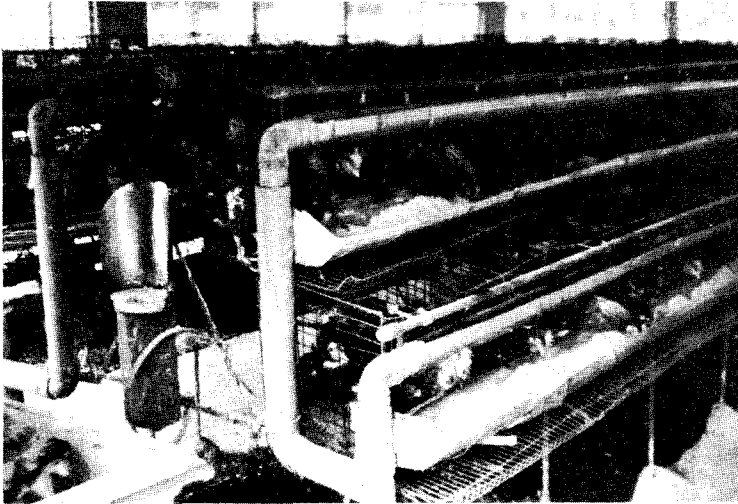
이미 미국의 계란생산비는 대란 기준 30원선이며, 태국이 35원선, 일본이 44.3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입의 길이 열려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계란이 들어올 수가 있는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혹서기를 고려하여 단열수치(R)가 10은 되어야 한다고 여러차례 발표된 바가 있다. 한국양계연구소가 발행한 “양계최고경영자 연구과정”에 따르면 계사의 단열수치10이 되려면 지붕에 대골스레이트+보온덮개+25mm유리솜 2장+보온덮개 한장+갑바기지1겹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토지매입이 어려운 만큼 단위당 사육수수를 높여 성계사를 축소하는 대신 계분처리시설로 전환해야



△ 계분관리가 안되어 스크레퍼시설은 생분을 긁어 모으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



△ 자동화라고 하여 급수기만 시설을 하여 놓은 곳이 많다.

한다.

선진국의 경우 평당사육수수가 90수선에 이르고 있으며 최첨단 시설인 콤팩트케이지의 경우 120수까지 수용되고 있는 실정에 까지 와있다.

물론 국민경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3~4배가 높은 나라와 직접 투자시설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시장이 개방되는 시점에 있어서 경쟁을 대등하게 해야할 입장이므로 생산비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원자재로부터 세계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나라와 사료원료로부터 종계 기자재까지 각종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세계상의 혜택까지 받지 못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30%의 원가절감을 시도해야할 처지에 있다.

자동화시설의 경우만 하더라도 어느 부분 하나만 기계화를 하였다고 당장 인력난이나 생산비가 낮아질 수는 없다. 기초부터 하나 둘씩 여건을 갖추어간 선진국의 양계산업을 구축한 나라의 사양관 리체계를 기반이 약한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시키려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내기자재 수준만 타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그 비싼 기계시설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로 변한다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

많은 양계인들이 생각하는 양계 자동화시설의 표준은 선진국의 경영모델을 고려하여 그대로 수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가 못지않은 수당 시설비 부담으로 망설이게 된다. 결국 투자액에 대한 이자에도 못미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절감을 위한 생산성향상을 다각적으로 해결하려는 생산자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음의 행동을 준비하겠다는 생산자로 대별이 되고 있어 일단 50%는 알면서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보여진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대란기준 계란생산비를 35원선에 제시하고 있는 채란농장도 있다. 그러나 전체 채란양계농장중 절반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 계란생산비를 45원대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채란 양계산업이 추구해야할 방향은 생산 원가를 30%정도 낮추어야 한다는 데로 귀착이 된다.

인력난은 이미 1차산업의 기피 현상을 넘어서 2차 제조업체까지 가중되고 있어 작업환경이 나쁜 채란양계산업은 더욱 구인난에 시달림을 받을 전망을 보이고 있다.

일부분만 보고 자동화를 시도하는 모험적인 양계업보다는 시설은 일부부터하되 경영주가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반적인 자동화 시설체계를 설계하여 완성되었을 경우 제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할 때이다.

우리나라 채란양계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30%의 생산비절감의 명제를 남겨놓고 급변해가는 경제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재투자할 해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